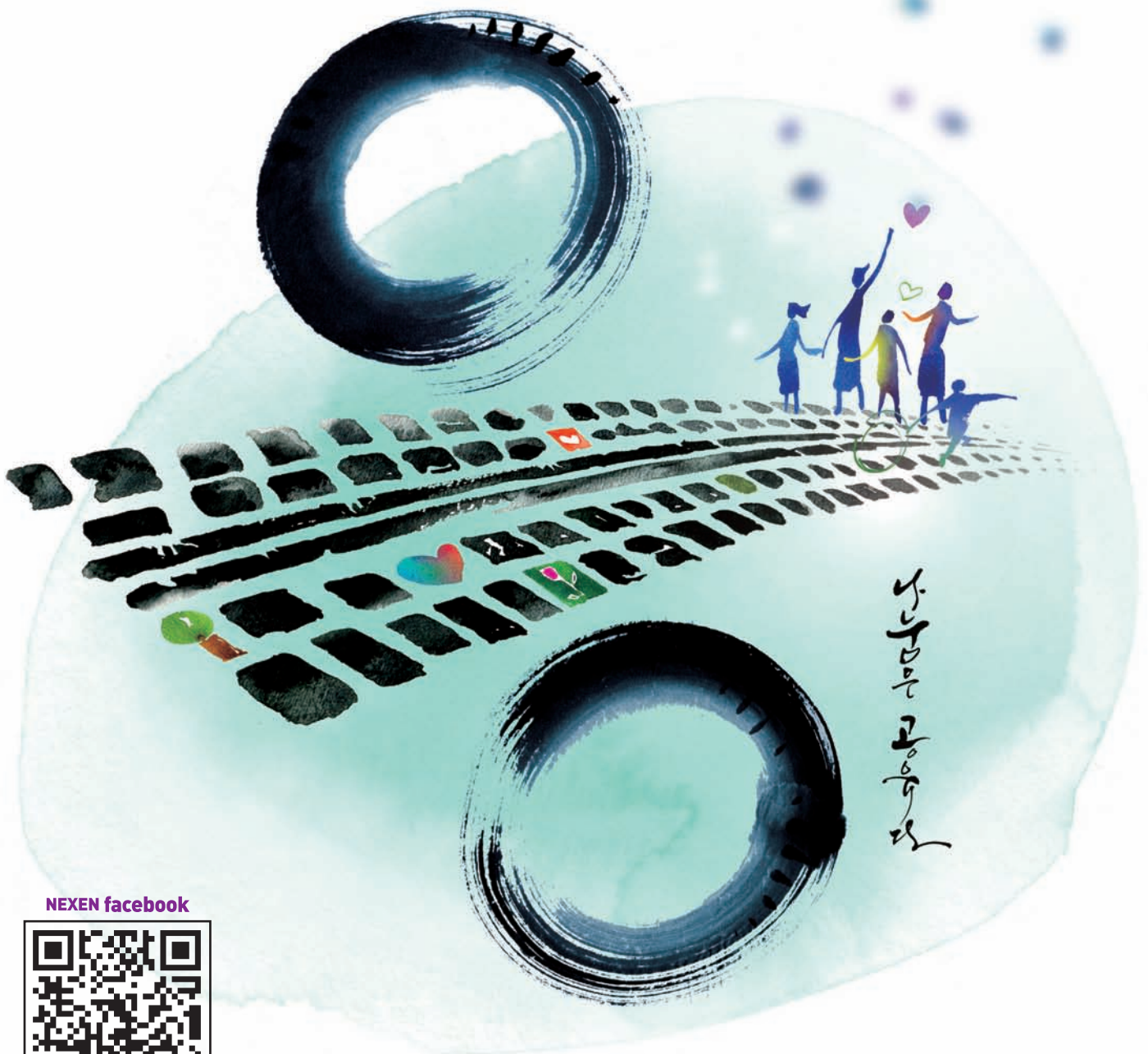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 HELLO NEXEN



HELLO NEXEN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

HELLO NEXEN | Vol.57 2014년 가을호



# 가을예찬

봄의 희망을 가득 품고 태어난 2014년, 여름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제 가을이라는 결실의 다디단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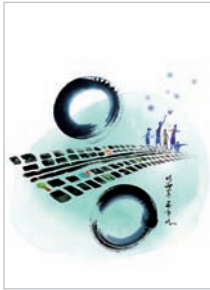
물론, 기다림이라는 성장통을 견뎌 내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 가을은 머지않아 겨울이라는 친구를 만나 또 한 번의 시간여행을 떠나겠지요.

계절도 시간도 사랑이라는 행복의 묘약이 없다면 절대로 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이 가을, 행복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나눌수록 커지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 표지 이야기

나눔이 아름다운 것은 '능동'에 있다.

하나이던 내 것을 타인과 나눔으로 인해 그것은 두 개가 된다. 그렇다.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이다.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4년 가을호 통권 57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4년 10월 1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 경영관리팀 | 담당 박수현 (055-370-5283) |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 디자인 백선영, 장윤희, 전명숙, 이예슬 |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 인쇄 (주)키움프린팅

## N value

- 04 Column  
나눔과 사랑, 그 아름다운 공존에 관하여
- 06 Happy Together  
UHP파트 사우들의 행복한 동행
- 12 Interview  
<빅이슈 코리아> 안병훈 편집장
- 14 N Hero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한별
- 18 Story  
우리, 셰어하우스에 산다
- 22 Culture  
함께 부른 노래, 함께 들을 노래
- 24 N Mind  
'직장인 권태기' 극복 노하우

## N life

- 28 Drive & Leisure  
남해의 비경을 마주하다
- 34 Family Day  
RE개발2팀 추권철 선임 연구원 가족의 행복 나들이
- 38 Food Story  
창녕 · 대구 특별한 날 근사한 맛집
- 42 Health Plus  
탈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44 Money Tip  
달러 환율 1,000원 시대, 나만의 비밀 금고 만들기
- 48 Kids Love  
직접 기르는 베란다 텃밭
- 50 Wide Road  
대관령 숲속에서 보석 같은 길을 만나다

## N company

- 56 Team Story  
상남자들의 거침없는 질주 본능 (창)정련파트 카트체험
- 60 Mentor & Mentee  
가류파트 김남현 · 배영철 사우의 수제 맥주 만드으리
- 64 N Photogenic  
지난여름의 달콤 쌉싸르한 추억
- 72 Nexen Friends  
타이어테크 배재집

## News center

- 76 On Air  
Challenge Leadership 교육
- 78 Nexen News  
넥센 뉴스
- 82 N Voice  
헬로우넥센과 通하다
- 83 Epilogue  
포토퍼즐 및 당첨자 발표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지독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명(귀울림)으로 생긴 우울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 양쪽 귀에선 단 1초도 쉬지 않고 고막이 찢어질 듯 고음이 들립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전기톱으로 쇠파이프 자르는 소릴 들어보셨는지요. 귀가 따가울 정도의 고음 때문에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틀어막고 그곳을 서둘러 지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제 양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딱 그 소리입니다. 꺾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더욱이 이명 때문에 생긴 심한 어지럼증으로 다섯 걸음을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외출은 거의 불가능했고,

화장실 갈 때도 벽을 붙들고 가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갈 때도 등산스틱 두 개를 지팡이 삼아 위태롭게, 위태롭게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과 함께 동반되는 병이 어지럼증, 우울증, 불면증, 심할 때는 자살 충동이라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먹었던 빨간색 우울증 약은 제 혀를 푹푹 묶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조차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싫었고 사람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섬은 고통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자애원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한 눈빛이 가슴에 선연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애원 아이들은 저를 '치킨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자애원에 처음 갔던 날, 아홉 살 태웅이가 치킨을 먹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다음에도 꼭 올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 태웅이 좋아하는 치킨 사 가지고."

나눔과 사랑,



그 아름다운  
공존에 관하여

아픔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검손을 가르쳐주고,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어린 태웅이와 새끼손가락을 굳게 걸던 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앓으며, 한 달에 한 번 자애원에 가는 그 날은 세수도 하고 수업도 꺾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몸을 비틀거리며 자애원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저에게는 너무 먼 길이었습니다. 어지러워 몇 번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내 몰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사랑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일어선 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어린 딸아이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더는 말을 잊지 못하고 저는 어린 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다섯 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놀아주지 못한 둘째 딸아이에게 미안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강철같이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고통의 섬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파야만 보이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픔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검손을 가르쳐주고,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지독한 마음의 병을 앓았던 5년 동안,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한 달에 한 번 '치킨 아저씨'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지럼증에 몸을 비틀거리며 자애원까지 가는 길이 저에게는 너무 먼 길이었지만,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몹시 힘들었지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내 손을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것은 나를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

#### Profile

작품으로는 〈연탄길1, 2, 3〉과 〈행복한 고물상〉과 〈위로〉 등 총 20권이 있다. 2000년부터 책 수익금으로 운영해 온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통해,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 행복한 동행 희망을 담아 사랑을 나눠드립니다

부산 시청 앞 녹음광장. 이곳은 이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다. 산책도 하고 오래간만에 만난 동네 이웃과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내기 바둑도 둘 수 있는 곳으로, 특히 매주 토요일은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이곳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다. 지난 8월 16일, 광복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힘쓰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던 UHP파트 사우 5인방(김원희, 박광호, 박채현, 옥정우, 윤영식)이 4시간의 숨 가쁜 나눔의 열정을 함께했다.





열심히 해야죠.  
넥센인의 명예를 걸고...



Hello NEXEN



10:00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나누기 위해 모인 사람과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 틈새에서 어색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는 UHP파트 사우(김원희, 박광호, 박채현, 옥정우, 윤영식) 5인방. “와 휴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나요?” 윤영식 사우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평소 같으면 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지만, 광복절 연휴라 조금 저조하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도 기우였을까,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자원봉사자들이 공원 곳곳을 가득 채워 이곳

자원봉사자들의 넉넉한 인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심히 해야죠, 넥센의 명예를 걸고...” 5인방은 이내 서로 다독이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다. 서로의 앞치마 끈도 묶어주고 행사 이름표도 붙여주며, 밥퍼 관계자가 전하는 주의사항을 세심하게 듣는 사우들. 드디어 열정 5인방 사우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정해졌다. 어르신들께 생수를 직접 전달해 주는 식수 팀 배치 완료.

11:00

이윽고 어르신들의 끝없는 행렬은 시작됐다. 밥퍼가 새겨진 앞치마를 어색하게 들어 보이며 난처해 하는 상남자들 앞에 다가온 식수담당 팀장님께서 자상하게 사우 5인방이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두 상자씩 들고 배식이 되는 동시에 한 병씩 드리면 됩니다. 다 나눠주려면 꼭 한 병씩만 드려야 해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요, 아시겠죠?” 그때 행사 관계자가 외쳤다. “모두 식탁과 의자를 함께 나르세요, 봉사 참여자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5인방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번을 움직인 끝에 오늘 밥퍼의 보금자리 완성. 분주한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고,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담고, 열정 5인방의 생수 배달까지. 이제 시작. 사실 열정 5인방은 내심 배식 담당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주어진 임무는 식수 나르기. 박광호 사우와 박채현 사우가 은근 실망한 눈치다. “‘밥퍼’자원봉사로 알고 왔는데..., 배식 담당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이때 밥퍼나눔공동체 한경수 부장님께서 인자한 미소로 열정 5인방에게 대답했다. “밥만 나르는 일만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일 모두가 봉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빨리 시작합시다. 어르신들 기다립니다.” 밥퍼 관계자의 따끔한 훈계에 열정 5인방은 다시 생수 상자를 들며 한마디씩 외쳤다. “바쁘다 밥퍼!”



12:00

드디어 마이크를 든 진행자의 구수한 입담과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지며 배식이  
시작됐다. 광복절 연휴라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모자란 상황. 열정 5인방은 식수 담당이지만  
배식도 함께해야 했다.  
“원희 네가 생수 상자를 들어. 그럼 내가  
한 병씩 드릴게.”  
평소 서로 아웅다웅하는 김원희 사우와 옥정우 사우는  
어느덧 콧비가 되어 무거운 생수 상자를 들고 함께  
분주히 다니기 시작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목마르시죠?  
물 드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마냥 상남자던 이들은 마치 친손주처럼 어르신들께  
애교 있게 인사말을 건네며, 이곳 저곳 생수를 전달했다.  
공원의 매미 소리와 함께 열정 5인방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13:00

이렇게 밥퍼의 어르신들 음식 대접은 훈훈하게  
종료됐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과 즐거운  
사우들의 표정.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뒷정리까지 해야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자 이제 생수병 다 거둬 오세요.  
생수병은 일회용이니 다 한 번씩 밟아서  
상자에 다시 담아주세요.”  
생수병을 거두고 또 정리하고, 세팅 되어있던  
식탁과 의자도 모두 접어 밥퍼 차량에 놓아야 한단다.  
그리고 주변 쓰레기 정리까지 모두 끝나야 상황 종료.  
사우들은 다시 구슬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자 마무리하고 식사합시다.  
배고프시죠? 여러분 힘냅시다.”  
진행자의 우렁찬 멘트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은  
또 한번 “밥퍼 화이팅”을 외치며, 주변 정리를 시작했다.  
열정 5인방의 땀방울 맺힌 검게 그은 얼굴은 어느 때보  
다 더 활기차고 밝아 보였다.  
인연의 끝자락, 언제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열정 5인방이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김원희, 박광호, 박채현, 옥정우, 윤영식 사우...  
열정과 패기를 나눔으로 승화시킨 미래의 버팀목  
‘열정 5인방’, 그들이 있어 벅센은 참 든든하다.👊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얼굴은 이미 붉은 땀방울로  
손에 든 상자를 적시고 있었다. 드리고 또 드리고,  
100상자가 넘는 생수 상자는 어느덧 50상자, 30상자.  
이제 10상자만이 남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1,500명분 가량의 밥은 동이났고,  
저 멀리 줄을 서 계시던 어르신들은 아쉽게  
발길을 돌리셨다.  
“물이라도 주면 안 됩니까?”  
한 어르신이 다가와 밥은 됐으니 생수라고  
한 병 달라고 하자, 김원희 사우는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선뜻 생수 한 병과 과자 한 봉지를  
어르신께 드렸다.  
“식사 못 하셔서 어떡해요. 과자와 함께 드세요.  
다음에는 꼭 일찍 오세요, 어르신.”  
김원희 사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관계자도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 EPILOGUE



김원희

자원봉사를 지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땀도 나  
고, 목도 마르고, 나뉘드릴 생수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잠깐 했지  
만, 어르신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  
며 더욱더 힘을 낸 것 같습니다.



박광호

보람되고 뜻깊  
은 하루를 보  
낸 것 같습니  
다. 생각보다 많은 자원 봉사자  
들이 참여해 놀랐 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낸 것 같  
습니다. 다음에 또 참여하겠습니  
다.



박채현

처음이어서 그  
런지 서툴고 힘  
들었지만 무더  
운 날씨에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  
신들을 보니 더 뛰어다니며 한  
분이라도 더 식사를 하시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옥정우

학교를 졸업하  
고 오랜 만에  
해본 봉사활동  
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  
만 정말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헬로우 벅  
센> 정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  
다.



윤영식

휴일에 집에서  
의미 없는 시  
간을 보냈었는  
데,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합  
니다. 식수를 배달하며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것이 이렇게 뿌듯  
한 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다  
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 <빅이슈 코리아> 안병훈 편집장

“혼자 살 수 없는 삶이라면,  
당연히 나눠야죠”

지난 2010년 7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잡지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사회가 빈곤해진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당차게 외치던 20대 후반 청년들의 의식개혁과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빅이슈 코리아>. 각자의 재능을 나누고, 또 힘을 모으고, 지난 4년간 <빅이슈 코리아>(이하 빅이슈)를 이끈 안병훈 편집장을 만났다.

“굉장히 모험적이고, 말도 안 되는 획기적 발상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가능하리라 확신했어요.”  
일본 빅이슈 대표인 사노 쇼지를 만났을 때 그 깊은 울림과 여운을 지금까지도 간직한 빅이슈 안병훈 편집장은 주저없이 그를 롤 모델로 꼽았다. 사노 쇼지 대표는 만드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도, 정부도,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안 편집장과 빅이슈의 운명적 만남은 시작됐다. 거리에서 홈리스가 판매한 수익의 반은 그들에게 돌아가는 빅이슈.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영국과 호주, 일본의 성공사례를 보고 안 편집장은 희망을 얻었다.

### 사회 속에서 숨 쉬는 나, 그리고 ‘빅이슈’

영등포 청과시장 비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사무실. 집기도 모두 빅이슈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하나 채워놓기 시작한 것이다. 빅이슈는 잡지의 콘텐츠와 만드는 사람들, 잡지의 연간 2억 원이 넘는 용지까지 모두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뜻있는 사람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고 있다.

“빅이슈가 ‘재능기부 확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물론 재능 기부 제안은 많지만 빅이슈에 꼭 필요한 것만 받고 있다. 사실, 안 편집장의 바람은 따로 있다. 바로 따뜻한 ‘자발적 기부’이다. 빅이슈에서는 뛰어난 재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이다.  
“저희에게는 ‘자발적인 의지’라는 그 1%가 더 소중하죠. 재능기부와 나눔에 대해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편집장의 말은 즉,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기에 다시 환원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타인보다 조금 더 누린 것이라면 당연히 나눠야 한다는 생각들이 점차 더 늘어나야 소비계층이나 약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물론 빅이슈는 재능기부로 만들어지는 잡지지만, 소비계층은 기부가 아닌 ‘소비’라는 개념으로 잡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안 편집장의 지론이다. 판매자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소비활동을 해줘야 한다. “사서 보는 잡지여야 하는 것이지 절대 ‘사주는 잡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안 편집장은 빅이슈 발간을 위한 한계와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이 부쩍 많아졌다. 인식개선사업부터 안정적 수익구조를 위한 정기



구독자 수 늘리기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사실 호당 만 부 이상이 발행되어 판매수익이 낮은 편은 아니다. 보름 안에 잡지가 완판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도 높고, 지면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빅이슈의 위상도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 숨은 조력자는 누구일까. 일명 ‘빅판’으로 알려진 빅이슈 판매원이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 행복을 위한 이유 있는 ‘공존’

“판매가 쉬운 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분들, 저는 정말 존경해요. 거리에서 빅이슈를 팔면 일단 ‘난 홈리스’라고 커밍아웃하는 셈이죠.”  
그간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받던 그들이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관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에 가슴 벅차다는 안 편집장.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그들이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  
“집 없는 사람이 홈리스라고요? 아니요,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도 홈리스예요. 그들이 왜 커밍아웃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관계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죠.”  
우리네 삶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 모두, ‘누구나 홈리스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빅이슈 코리아> 안병훈 편집장의 뼈있는 외침을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마르지 않는 샘, 빅이슈는 오늘도 행복 전도사들의 외침이 있어 더욱 활기차다.

“행복하세요? 전 지금도 충분히 값진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빅판님’들이 있어서 행복해요.”<sup>10</sup>

제품평가팀 박성훈 조장 자녀 박한별 선수

# 눈부신 아시아의 물살을 가른다!



그냥 평범한 소녀였다. 잘 웃고, 부모님 말씀 잘 듣던 애교 많은 막내딸. 그저 물을 좋아해 수영장에서 물장구치던 그 소녀는 10년이 훌쩍 지난 2014년 가을, 어느덧 촉망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급성장했다. 제품평가팀 박성훈 조장의 차녀이기도 한, 박한별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금빛 스타트를 위한 꿈의 승부수를 던진 그녀를 '열혈 아빠' 박성훈 조장과 함께 만났다.

박한별 선수의 모교인 부산체육고등학교 실내 수영장에서 오랜만에 조우한 제품평가팀 박성훈 조장과 박한별 선수. 박 조장은 훈련 중인 박 선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 밖으로 나오자, 이내 반가움에 다가섰다.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자. 27초대 진입해서 결승까지 가자. 한별아.”

박 선수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아버지의 격려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긋 웃었다. 이 모습을 보는 박 조장의 눈빛,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제가 격려한다고 해도 한별이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주변에서 기는 기대가 커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 훈련 때문에 자주 볼 수도 없으니 그저 담담하게 마음만 전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식 사랑앓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별이는 강해야 하니까... 애달파하면, 더 힘들까봐 오히려 아버지를 자책하는 거죠.”



서성식 코치와 훈련중

그녀가 바라는  
그 꿈, 바로  
세계무대이다.

## 물 위를 수놓은 꿈, 비로소 현실이 되다

박 선수는 지난 7월 19일,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영 대표 선발전에서 여자 고등부 배영 50M 예선과 결선 모두 28초40이라는 한국 신기록을 하루 만에 두 번 달성, 태극마크까지 달며 무서운 신예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언론에서는 박 선수를 “박태환 선수의 뒤를 이을 인재가 나타났다”며, ‘여자 박태환’으로 대서특필했다. 공교롭게도 이 대회에서 6관왕을 차지한 박태환 선수가 박 선수에게 축하인사를





부산체육고등학교 앞에서  
제품평가팀 박성훈 조장과 딸 박한별 선수

건넌고, 새로운 '수영요정' 탄생의 순간을 언론은 놓치지 않았다. 여자 배영에는 유독 유망주가 많은데, 이들과 펼치는 선의의 경쟁이 박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163cm의 작은 키에 다부진 몸,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박 선수의 강점은 스타트에 이은 잠영이다. 부산체육고등학교 서성식 코치는 “물속에서 초반 15m를 나아가는 돌핀킥은 실업 선수들보다 월등하다”며, 지구력만 차츰 보완한다면 더 좋은 기록을 낼 거라 확신했다. 대한수영연맹에서도 박 선수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제2의 박태환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세계를 향한 외침, 그 이름 박·한·별

이제 국가 대표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은 만큼 박 선수는 고민이 많다. 박 선수는 훈련의 고단함, 학업병행도 큰 부담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끌어 올릴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이후의 진로까지 온통 수영 생각뿐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꿈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기에 박 선수는 힘을 내야 한다. 그녀가 바라는 그 꿈, 바로 세계무대이다. 그렇기에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는 박 선수에게 특별한 시작이다. “일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결승진출 하는 것이 목표예요. 결승에 진출하면, 제 수영 선수 생활에서 '성인식'을 치른 셈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목표는 세계무대에 제 이름 '박한별'을 알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박 선수를 내조하는 박 조장은 부모 된 마음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어린 나이에 지나친 관심과 부담으로 심적 고통을 받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 “현장에서 한별이의 멋진 모습을 제 눈에 직접 담고 싶은데



## P a r k H a n B y e o l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경기장 밖에서라도 응원해야지요.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박 조장은 확신에 찬 듯 박 선수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에 박 선수는 의연하게 다짐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렇듯 남다른 감각과 타고난 재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해주는 이상,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박 선수를 곧 보게 되지 않을까. 바로 이 바람은 박 선수의 목표이기도 하다. 한 소녀의 꿈을 향한 거침없는 도전, 바로 넥센의 거침없는 질주와 참 많이 닮아있다. 박한별 선수가 황금빛 터치패드를 누르는 그 순간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는 박성훈 조장과 넥센인의 그 염원이 이루어질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10

#### 박한별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한국 수영은 박태환 선수와 더불어 박한별 선수가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별 선수는 올 한해 가뭄에 단비 같은 한국기록을 3개나 수립하면서 12년 만에 한국서 개최되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한국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수영에 대한 감각과 재능이 다른 선수들보다 남달랐고, 승부근성이 강한 선수입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지극정성 후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듯합니다. 특히 여자 선수로서 흔치 않은 멀티플레이어 선수로, 접영 종목에서 배영, 최근에는 자유형에서도 좋은 기록을 내고 있어, 머지않아 개인혼영에서도 한국 1인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대한수영연맹에서도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박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박한별 선수 본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 다가오는 2016 브라질올림픽에서도 충분히 값진 노력의 결실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박한별 선수의 선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한수영연맹 상임 부회장 정부광

삶을 나누고 공간을 공유하는

## 우리, 셰어하우스에 산다

어두운 집에 홀로 불을 켜고 들어가 TV를 보며 밥을 먹고, SNS의 스크롤바를 하염없이 내리다가 잠이 든다. 어느 누가 화려한 싱글족이란 말을 만들었던 말인가. 쓸쓸하다 못해 지지리 공상을 떨고 있을 그대를 위해 준비했다. 따로 또 같이, 든든한 하우스메이트가 있는 셰어하우스.

### 셰어하우스 ‘바다’

매일 저녁 들르는 편의점 파트타임 직원과 안면을 텃다면, 컵라면과 삼각김밥은 안 먹어 본 맛이 없을 정도로 빠삭하다면 셰어하우스 바다를 추천한다. 전라도 출신의 깊은 손맛을 자랑하는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번 직접 집밥을 해주시기 때문이다. MSG가 듬뿍 들어간 식당 음식에 길들어 있던 죽은 입맛도 회생시켜줄 집밥 서비스는 바다만의 자랑이자 입주자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제도. 또한 일주일에 한 번 공동공간인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청소 당번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불화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작은 원룸에서 벗어나 하우스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은 감각적인 공간에서 생활해보고 싶은 이라면 더욱욱 입주 기회를 놓치지 말길.



## 통의동집

도시의 편리함과 오래된 동네의 차분함이 교차하는 서촌. 그 묘한 분위기에 이끌려 몇 년 전부터 하나둘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유의 문화가 생겨났다. 그 중심 통의동에 위치한 통의동집은 '혼자이면서 함께 살다'라는 기본 전제를 추구한다. 억지스러운 관계보다는 자유로운 독립과 공존감이 현대 도시의 진정한 공동체 감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상 2층과 3층에 걸쳐 7개로 나누어진 독립 구조의 통의동집은 디자인, 건축,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지하에는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는 다이닝룸이 있어 가끔 파티가 열리기도 한다. 1층에는 정림건축재단의 사무실 겸 도서관이 있어 입주자라면 건축·디자인 서적을 맘껏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 보더리스하우스

몇 년째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회화 실력이 도통 늘지를 않는다면 보더리스하우스가 딱이다.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더리스하우스는 유학 온 외국인들이 한국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국제교류를 테마로 만든 셰어하우스다. 때문에 하우스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2인 1실이라도 절대 같은 국적 사람끼리는 방을 쓸 수 없다. 또한 랭귀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한국 입주자들을 외국인과 1:1로 매칭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외국인 입주자에 한해 한복 체험과 남산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도모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국제적 시야와 가치관을 넓힐 수 있다.



## 셰어하우스 '우주'

소셜 벤처 기업 프로젝트 속에서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로 각 지점마다 고유의 테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로구 권농동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시작으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리사이클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까지 총 15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인테리어 또한 각 특성에 맞게 꾸며져 있는데, 특히 마포구에 위치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은 붉은 암막 커튼과 빔프로젝터, 스크린,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집에서도 영화를 고품격으로 즐길 수 있다. 우주의 월세 비용이 그다지 저렴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실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면을 따지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에 가치를 느끼는 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이며, 셰어하우스 우주로 모이자.⑩

너와 나의 멜로디

# 함께 부른 노래, 함께 들을 노래

청명한 이 가을, 누군가와 함께 이어폰 하나씩 나눠 끼고  
이 노래를 함께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함께  
부른 노래, 우리가 함께 들을 노래.

아이유 × 김창완



아이유 × 김창완  
너의 의미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1984년 산울림이 부른 이 곡은 당시 김창완의 풋풋한 목소리로 큰 인기를 끌었다. 30년이 지난 현재, 리메이크된 〈너의 의미〉는 원곡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선입견을 깨고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세대를 아우르는 두 가수가 부스 안에 함께 들어가 호흡을 맞추며 녹음한 덕분에 세밀한 음의 흐름까지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친구세대 가수의 조합이지만 전혀 촌스럽거나 어색하지 않다. 아이유의 청아한 목소리와 김창완의 따스한 목소리가 전달하는 가사 속 주인공의 떨리는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풋풋하다.

이광조 × 요조  
생활의 발견

‘당연한 듯 변했기에 고마움을 우린 몰랐어  
내 아름다운 기억 속에 찬란했던 생활의 발견’

80년대 독특한 음색으로 주목받았던 전설의 보컬리스트 이광조와 흥대 여신이라 불리며 인디 씬에서 독보적인 목소리로 자리 잡은 요조의 콜라보레이션 신곡. 보사노바의 이국적 색채 위에 묵직하지만 부드러운 이광조의 저음과 상큼하고 신선한 요조의 미성이 한데 어우러져 듣는 이로 하여금 가벼운 발걸음으로 옛 동네를 거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오래전 추억을 되새기고 싶은 사람이 들으면 좋을 노래.

악통 × 정엽  
거울속의 너

‘거울 속에서 있는 지금 니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져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야’

문득 상사 앞에서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는 나, 일상에 치여 습관처럼 시간을 찌푸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 적이 있는가. 사소한 일에도 웃음 터뜨리던 예전의 모습과 다른 내가 어찌지 낯설게 느껴진다. 청춘의 시간을 몽땅 잃은 것처럼 우두커니 있었다면, 티 없이 맑았던 어린 시절, 열정과 패기로 가득했던 그때를 떠올려보자. 소울 충만한 정엽과 어쿠스틱한 악통이 만들어낸 리드미컬하고 감미로운 하모니가 치열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잊고 살던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해 줄 것이다.

악통 × 정엽

악통,  
정엽

거울속의 너



크라이베이비 × 깃스



크라이베이비 × 깃스  
긴생머리

‘너의 그 긴 생머리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  
길을 걷다가도 생각이 나’

출근길 혹은 퇴근길 무심코 둘러본 정류장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이상형을 발견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길 바란다. 크라이베이비 특유의 매력적인 보컬과 힙합 듀오 깃스의 리드미컬한 사운드가 설레는 당신의 마음을 대변한다. 악기와 보컬 등 총 140여 개의 세션 트랙을 사용해 구간별로 조금씩 다른 무드를 형성하고 있어 나른한 듯 신 나고, 몽환적인 듯 핑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주현미 × 서현  
짜라자자

‘사랑이 정말 싫어서 그런 거 이제 안 해요  
이렇게 말해도 다시 또 찾겠죠’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와 아이돌 요정 소녀시대 서현이 세미 트로트로 입을 맞춰 한동안 이슈였다. 모녀처럼 다정한 선후배 가수가 눈빛을 교환하며 사랑을 잃은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이 곡은 경쾌한 리듬에 감칠맛 나게 꺾이는 창법과 중독성 있는 가사가 어우러져 절로 듣는 이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한다. 한번 들으면 온종일 머릿속을 맴돌 도는 마성의 노래. 소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모티브로 재미있게 각색된 뮤직비디오도 흥을 돋우는 묘미다.

양동근 × 다이ना믹 듀오 × 크러쉬  
JAJAJA

‘받아들이기 나름인 삶은 찻바퀴 굴러가듯  
긴 싸움 Carpe diem  
그냥 즐기면 돼 just do it like this’

양동근이 돌아왔다. 타이틀의 JAJAJA는 결혼할 자, 결혼한 자, 안 한 자를 치칭하며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재치 있는 가사와 진솔한 목소리로 담아냈다. 특히 양동근은 이번 앨범을 통해 정통힙합만 고집해왔던 스타일을 과감히 바꾸고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 트렌디한 힙합을 선보이며 대중에 신선함을 선물했다. 양동근 특유의 묵직한 스타일에 다이나믹 듀오와 크러쉬의 매력적인 보컬이 더해져 부드러우면서도 남자답고, 진중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

양동근 × 다이나믹 듀오 × 크러쉬



주현미 × 서현



# 넥센인의 '직장인 권태기' 극복, 노하우 좀 공유합시다!

이맘때면 꼭 온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직장인 권태기'. 직장인 권태기는 입사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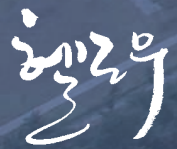
1년, 3년 등 예고 없이 덜컥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일과 함께 보내고 있는 직장인들이 출퇴근의 쳇바퀴에서 권태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찾아온 권태기에 이대로 질 수는 없겠죠? 불시에 찾아오는 불청객, 직장인 권태기를 극~뽕옥!

할 수 있는 넥센인들만의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 창녕공장 전경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벡센타이어의 눈부신 활약이 지금 창녕공장에서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의 심장부, 창녕공장은 최첨단 최신식 설비와 공정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힘찬 박동을 오늘도 꾸준히 이어 나갑니다.



섬과 바다의 낭만을 품은 물미해안도로

# 그곳에서 남해의 비경을 마주하다

보물섬 남해는 해안을 끼고 도는 도로가 많아 드라이브 코스로  
더없이 좋다. 섬과 바다를 느끼며 낭만적인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면 물미해안도로가 제격이다.



물건항의 등대 사이로 떠오르는  
오메가 일출이 장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 장엄한 아름다움에 매료되다

물건마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물건방조어부림이 자리하고 있다. 물건방조어부림은 해안을 따라 펼쳐진 길이 약 1.5km, 폭 30m의 숲으로 약 300년 전에 물건마을 사람들이 심어놓은 나무가 자라 지금에 이르렀다. 반달모양의 어부림에는 팽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푸조나무인 낙엽수와 상록수인 후박나무 등 300년 된 40여 종류의 수종이 숲을 이루고 있다. 강한 바닷바람과 해일 등을 막아 농작물과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숲이다.

어부림 앞쪽으로는 길이 1.5km의 몽돌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는데, 몽돌소리가 귀를 간질이면서 마음에 여유를 갖게 만든다. 해수욕장 앞에는 물건항이 들어서 있다. 방파제 사이로 배들이 오가는 풍경이 정겹다. 물건항의 등대 사이로 떠오르는 오메가 일출은 장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10월부터 2월 사이에 멋진 해돋이를 볼 수 있다.

물건마을 위쪽의 독일마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전경이 더없이 시원스럽다. 독일마을에 서면 어부림이 바닷가에 길게 늘어진 풍경 앞으로 물건항의 방파제가 양쪽으로 늘어선 채 등대와 어우러지는 풍경이 시선을 압도한다.

대지포의 컨테이너 박스형 간이매점이 있는 곳이 첫 번째 전망대 역할을 한다. 왼쪽으로 미조항과 은점마을이 한눈에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무인도인 마안도가 손에 잡힐 듯 펼쳐져 있다. 대지포에서 노구까지 '아홉 등 아홉 구비'로 일컬어지는 고개가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어낸다. 급경사에 급커브 구간이 많아 운전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비오는 날이나 야간 운전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 어디서 잘까?

물건항 입구에 자리한 수피아펜션(010-5507-6717), 삼동면 봉화리에 자리한 남해편백자연휴양림(055-867-7781)을 이용하면 된다.



## 그림 같은 풍경을 마음에 담다

물미해안도로의 백미는 향도마을 전망대다. 전망대에 오르면 쌍둥이 섬인 내향도, 외향도가 해수욕장 옆으로 나란히 이어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주변에 마안도, 콩섬, 팔섬 등을 비롯해 멀리 통영의 사랑도, 두미도, 육지도까지 다양한 섬들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향도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자리그물체험, 가두리 낚시체험, 스킨스쿠버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물건마을에서 향도마을로 이어지는 16.5km의 길은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해안 누리길로 지정되어 차를 주차하고 해안 길을 걸어도 좋다. 물미해안도로는 초전삼거리에서 끝을 맺지만 내친감에 미조항까지 가는 것이 좋다.

마을 초입 도로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미조 상록수림이 반긴다. 후박나무, 육박나무, 생달나무, 감탕나무, 빗죽이나나무, 메밀жат밤나무 등 수십 종의 나무가 자라는 상록수림은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기능과 초록을 좋아하는 물고기를 유인하는 어부림의 구실을 겸하고 있다.

미조항은 크게 북항과 남항으로 나뉘는데 입구의 항은 북항이고, 1분쯤 더 내려가면 남항이 나온다. 양쪽으로 길게 이어진 방파제 뒤로 호도, 조도 등 점점이 찍어 놓은 섬이 장관이다.



## 가을 햇살의 끝없는 향연, 남해를 기억하며

남향에서 배를 타고 조도에 가면 또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된다. 새섬이라 불리는 조도는 큰 섬, 작은 섬 2개의 섬이 하나로 이어졌다. 두 섬 사이의 바다를 매워 물양장을 만들고, 2층 건물의 어촌체험센터도 들어섰다. 마을 건물의 벽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조도 바래길이 만들어져 해안가를 걸으며 산책을 할 수 있다. 큰 섬에는 폐교인 미조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 폐교 부근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특히 일품이다. 폐교 앞 무인도인 죽암도는 섬에서 자라는 나무의 모습이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해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보리암이다. 보리암은 강원도 양양 낙산사 홍연암, 인천 강화도 보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기도처 중 한 곳으로 불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사찰이다. 복곡2주차장에서 보리암 매표소를 지나 10여 분 걸으면 보리암이다. 보리암 뒤로 대장봉을 비롯한 기암들이 널어서 암자와 조화를 이룬다. 대장봉에게 절을 하고 있는 듯한 형상의 형리바위가 옆에 함께 서 있어 눈길을 끈다.

보리암 3층 석탑 앞쪽으로 상주은모래비치와 마을 주변 경관이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빼어나다. 석탑 옆에는 해수 관음보살상이 바다를 바라보며 우뚝 서 있고, 그 앞에서는 기도를 올리는 불자들이 절을 한다.



보리암에 간다면 꼭 함께 들러야 하는 곳이 쌍홍문과 제석봉이다. 보리암에서 쌍홍문 방향으로 200m를 가다 삼거리에서 금산입구 방향으로 내려서면 바위에 구멍이 뚫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멀리서 보면 해골의 두 눈 같은 구멍이 있다. 쌍홍문 안에는 세개의 동그란 홈이 파여 있는데, 이 세곳에 돌을 던져 한 번에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보리암에서 기도한 소원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쌍홍문의 홈에다 돌을 던져 볼 일이다.

쌍홍문 입구에서 상사바위 방향으로 올라가면 제석봉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보리암 전경이 일품이다. 일월봉, 화엄봉, 대장봉 등 기암 사이에 안긴 보리암의 전경과 남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조망 포인트다.

온통 단풍으로 물든 금산 뒤로 파란 바다와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다. 제석봉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잠시 쉬면서 조용하게 전망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❷

### 출출할 때 여기 어때?

남해읍의 군청 옆에 자리한 **미담**(055-864-2277)은 정통한정식을 맛깔스럽게 내놓는다. 물건항 입구의 **막사도라의 커피여행**(010-5507-6717)에서는 원두커피의 향을 느끼며 여유를 부리기에 좋다. 다랭이마을에 자리한 **다랭이팍 농부맛집**(055-862-3998)은 멸치쌈밥, 유자해물화덕피자 등을 맛볼 수 있다.



## 소박했던, 행복했던...

RE개발2팀 추천철 선임 연구원 가족의 행복 나들이

## 유년의 추억을 함께 나누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변변한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못  
한 결혼 6년 차 RE개발2팀  
추권철 선임 연구원 가족. 아내  
김민숙 씨와 이란성 쌍둥이인  
오빠 승민, 여동생 효정이는 잔뜩  
신이 났다.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동물원에 온 것이  
처음이라는 부부는 자신들의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에서, 그 옛날 소소한 추억을  
다시 되새겨 본다.

“너무 바빠서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승민이와 효정이, 동물원 한 번 데려  
오지도 못했네요.”

멋쩍은 표정으로 쌍둥이를 태운 유모차를 바라보며, 아내 김민숙 씨 눈치를 슬쩍 보  
는 추천철 선임 연구원. 그동안 가족에게 너무 무심했다며, 토요일 주말근무까지  
마치고 동물원 나들이를 자청했다. 결혼 6년 차,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쌍둥이 남매가  
눈에 밝혀 일도 제대로 안 났을 터. 아이들이 아픈 바람에 이번 여름휴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마침 패밀리데이 코너가 동물원 가족 나들이라는 소식에 주저 없이 신청  
했다.

### 따뜻한 전을, 그 이름은 ‘가족’

“아이들이 제일 신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코너 출연한다고 하니 더 기  
뻐하더라고요. 육아의 고통은 함께 나뉘 봐야 안다면서. 하하하.”

그도 그럴 것이 한 명이 아닌 쌍둥이라 모든 것을 함께 똑같이 해줘야 해서 배로 힘  
이 든다.

“힘들어도 이렇게 해맑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힘이 저절로 나죠. 업무에 시달리  
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와락 안기거든요. 그때 힘들었던 하루가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아, 가족의 정’이 이런 거구나, 나도 어릴 적 내 아버지  
의 가슴팍에 이렇게 안겼지. 아버지의 따뜻한 심장박동 소리를 느낀 그 생각에 가슴  
뭉클하죠.”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감을 실감한다는 말이 기억난  
다는 추천철 연구원. 마냥 신이 난 승민이와 효정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한 사  
랑의 온기가 느껴졌다.

유년의 추억이 주는 아련함이 묻어 난 이곳에 부부의 유년 시절도 함께 자리 잡고 있



어 더욱 애뜻하고 아련한 모양이다.

“사자, 호랑이, 사슴도 저희가 봤던 그 시절 그 동물 친구들이 가족을 만든 거겠죠. 우리 쌍둥이들도 그걸 알까요? 이 다음에 꼭 같은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네요.”

그때 저만치서 효정이가 아빠를 부르며 달려왔다.

“아빠, 아빠, 사자, 사자.”

사자를 보자며 효정이가 아빠의 손을 이끌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딸의 살가운 애교에 딸 바보 추 선임 연구원은 어느덧 효정이의 고사리 깍지 손에 이끌려 갔다. 뒤이어 개구쟁이 승민이가 떼를 쓰며 과자를 달라고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다. 과자 없이는 절대 안 움직일 태세다. 한가득 싸 온 짐꾸러미에서 과자 한 움큼을 꺼내 쥐여 주니 조용히 뒤따르는 승민이, 승민이에게 엄마는 소



우리 쌍둥이들 조금 더 자라면  
자주 함께 다녀야죠.

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속 지니 와도 같다. 그래도 밝게 씩 웃는 승민이를 보고 있노라니 울어도, 떼를 써도 밉지가 않다. 그 행복의 찰나를 놓치지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 익숙함과 아련함의 교감

아이들과 함께하는 내내 부부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예전의 추억을 함께 되새겼다.

“같은 자리에 있는 동물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보이네요.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콘 아이스크림 하나랑 솜사탕을 손에 쥐여 주셨는데, 이제는 햄버거랑 인형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니까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천진난만 쌍둥이는 저만치서 동물친구들과 교감 중이다. 이내 추 선임 연구원은 ‘예쁜 짓, 효정이 예쁜 짓’ 하며, 효정이를 번쩍 잡아 들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승민이 효정이, 어찌죠. 바라만 봐도 행복한데, 우리 쌍둥이들 조금 더 자라면 자주 함께 다녀야죠. 좋은 것은 좋다, 멋진 풍경은 멋있다는 느낌을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유년시절 수줍음 많던 아이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이제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셨겠죠. 말 안 듣고 울며 떼를 써도, 그래도 사랑스러운 내 행복이라고. 이대로 있어 줬으면 해요. 씩씩하고 예쁘게 자라는 것은 좋은데 저희 부부가 늙어간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오래오래 함께 이대로 지내고 싶은데, 더 나이들기 전에 더 열심히 놀아주고 아낌없이 사랑해 줘야지요.”

이제 부부의 익숙한 그 자리는 먼 훗날 또 한 번, 행복한 승민이와 효정이의 익숙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소박하고, 아련했던 지금 이 순간을 추억하면서 말이다. <sup>19</sup>



## letter

승민아, 효정아.  
내가 꼭 너희 나이였을 때 말이야.  
꼭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던  
내가 이제 너희에게 그 소박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느구나.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스쳤던 어렸을 적 그 자리에 어느덧  
내가 다시 서 있는 그 느낌 아파  
너희도 언젠가 꼭 같은 그 자리에 서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겠지.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뉘준 내 유년시절 소박한  
추억을 항상 기억해주렴.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행복이니까.  
- 아버지 -



사우 추천 창녕·대구 맛집

# 특별한 날 즐기는 근사한 맛

청국장과 삼겹살을 고집하던 팀장님께서 약속이 있어 따로 점심을 먹겠다고 했다면 오늘이 바로 기회다. 옷에 냄새 벨 염려가 없어 탈취제도 필요 없고, 가을 햇살을 만끽하며 품격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창녕·대구의 근사한 맛집을 소개한다.



RE개발1팀 변길재 사우

독일식 족발 슈바인학센 전문점  
**도니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혹은 불편한 식사자리에서 족발만큼 먹기 힘든 음식이 또 있을까. 새우젓에 푹 찐 고기를 상추 위에 올리고 마늘과 쌈장을 차례로 얹어 먹는 그 맛이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직 상대방에게 내 금니가 몇 개 인지까지 밝히긴 어렵다면 독일식 족발 '슈바인학센'을 추천한다. 독일의 축제나 비어하우스에서 빠지지 않는 슈바인학센은 껍질이 바삭하고 속살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 동성로에 위치한 도니발에서는 슈바인학센을 주문하면 돼지 앞다리를 썰지 않고 통째로 보여준 뒤 손님이 보는 앞에서 먹기 좋게 썰어준다. 오리지널도 인기가 많지만 느끼함을 잡고 싶다면 갈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독일 맥주도 종류별로 갖추어져 있으니 회식 장소로도 문제없다.

## INFORMATION

**메뉴** 슈바인학센 2만 2천 원, 파스타도니 1만 6천 원, 포피아도니 2만 2천 원 (모두 2인 기준)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12-21  
**문의** 053-253-4448  
**영업시간** 평일 13:00 ~ 22:30, 주말 13:00 ~ 23:00



(창)전기파트 진명수 사우

화덕에 구워낸 쫄깃한 피자  
**오라티오**

두껍고 퍽퍽한 도우의 시대는 갔다. 얇고 쫄깃한 도우 위에 살살 늘어나는 치즈가 일품인 오라티오의 화덕피자는 참나무 장작불에 구워내 그 향과 맛이 기가 막힌다. 때문에 반듯하게 정리된 정원을 따라 입구에 들어서면 가게 한쪽에 장작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MSG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든 토마토소스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바질만 사용해 믿고 먹을 수 있다. 마르게리타를 비롯해 고르곤졸라, 봉골레, 게살 꽃게 로제 등 다양한 메뉴를 취향대로 골라 먹는 것도 재미. 내부가 널찍해 단체모임은 물론 돌잔치 같은 행사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 INFORMATION

**메뉴** 마르게리따 1만 3천500원, 고르곤졸라 1만 4천500원, 봉골레 1만 500원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사촌길 1-27  
**문의** 053-614-5425  
**영업시간** 11:00 ~ 22:00

(창)정련파트 이성진 파트장

작은 공간에서 맛보는 정통 이탈리아 요리  
준더쿠치나

착한 가격에 고급 이탈리아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준더쿠치나를 추천한다. 이탈리아어로 '부엌'이라는 뜻인 쿠치나에 김준혁 셰프의 이름을 넣어 지었다는 준더쿠치나는 숨은 맛집으로 이미 대명동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특히 새우가 듬뿍 들어간 새우칠리спа게티와 고소한 치즈가 일품인 고르곤졸라는 찰떡궁합.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고르곤졸라를 꿀 대신 매콤한 스파게티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앉은자리에서 피자 몇 판은 거뜬할 듯하다. 또한 착한 가격에 반비례하는 푸짐한 양도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데 한몫하고 있다. 단, 테이블이 세 개밖에 없으니 붐비는 시간에는 예약이 필수다.



INFORMATION

메뉴 마르게리따 7천 원, 고르곤졸라 5천 원, 차돌박이 크림 스파게티 8천 원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북개로4길 165-2  
문의 053-259-0930  
영업시간 11:30 ~ 21:00

(창)인사총무팀 지시언 사우

쏟아지는 핫살과 어울리는 브런치  
더원인더가든

앞산 공원 카페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더원인더가든은 올데이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브런치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브런치 전문 레스토랑인 만큼 내부에는 '모'자 구조의 야외 정원이 마련되어 있어 낮 시간에 찾으면 따사로운 핫살을 맞으며 식사를 할 수 있다. 이곳의 인기메뉴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와 치즈가 듬뿍 들어간 오믈렛. 조금 더 푸짐하게 즐기고 싶다면 피자와 스파게티 종류도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대로 고르자. 식후에는 여유로운 커피 한잔도 잊지 말길.☎

INFORMATION

메뉴 가든앤가든 오믈렛 2만 5천 원, 리코타치즈 샐러드 1만 5천 원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177  
문의 053-656-0111  
영업시간 09:00 ~ 23:00 (화요일 휴무)



(창)원동파트 임윤섭 사우

빙수와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  
더반하다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디저트배'는 따로 있는 법. 식사를 마친 뒤 달콤한 디저트가 생각난다면 더반하대로 향하자. 주택가에 위치한 더반하다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아늑한 공간으로 커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귀여운 비주얼로 SNS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멜론송이가 바로 이곳의 간판메뉴. 송알송알 탑을 쌓은 멜론과 그 위에 올려진 아이스크림을 살짝 떠 입안에 넣으면 달콤함과 시원함이 조화를 이룬다. 이 외에도 커피와 에이드, 화분처럼 생긴 화분케이크, 치즈케이크 빙수도 있으니 꼭 맛보도록 하자. 단, 멜론송이는 계절메뉴로 초가을까지만 한다고 하니 내년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조금 서둘러야겠다.

INFORMATION

메뉴 멜론송이 1만 3천 원, 치즈케이크빙수 1만 2천 원, 딸기꽃화분케이크 5천800원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96  
문의 053-255-0705  
영업시간 13:00 ~ 23:00



헬로우넥센 추천 맛집

이름마저 달콤한  
슈가 파우더

알록달록 색깔 고운 마카롱과 씹새름한 커피의 조합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업무에 치여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달콤한 디저트 생각이 더욱더 간절하다. 하얀 외관이 벌써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슈가 파우더에서는 마카롱 외에도 생크림을 듬뿍 올린 허니 브레드와 갓가지의 조각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 10월부터는 간단한 병맥주와 안주, 식사류도 준비된다고 하니 꼭 둘러보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창녕에서 맛 좋기로 소문난 닭고치 집 '새벽닭이 울 때까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니 회식 후 깔끔한 뒷마무리가 필요하다면 잠깐 들러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좋겠다.☎

INFORMATION

메뉴 아메리카노 3천 500원, 카푸치노 4천 원, 조각 케이크 4천 원, 마카롱 1천 800원  
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13  
문의 010-6327-6844 영업시간 11:00 ~ 23:00



# 탈모에 대처하는



# 우리의 자세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련 정보도 방대해졌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가 하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다. 탈모 치료 전문가 최동기 원장과 함께 의학적으로 검증된 탈모 예방과 두피 관리법을 정확히 짚어보자.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별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복되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좋지 않은 식사·수면·운동습관과 대인관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은 처음에는 별로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누적되다 보면 결국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오늘만인데 어때 뭐! 딱 한 번인데...' 하는 생각들이 습관을 만들어내 질환으로 이어진다. 비단 탈모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은 만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유전적인 원인만 아니라면 평소 생활습관만 잘 들여놓아도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

**1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탈모에 가장 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인체는 비상 모드로 전환한다. 심장이나 폐 등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나 근육 등으로 혈액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피부나 두피로의 영양공급은 그만큼 줄인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두피의 영양 상태는 나빠지며 모발 성장도 둔화되고 만다. 사실 스트레스는 그 자체의 강도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흔히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한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모발을 위해서라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태도의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기르자. 현실을 수용하고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기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여 탈모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2 낮과 밤, 확실히 구분해야**  
탈모인에겐 수면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수면시각이다. 수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밤 10시~새벽 2시까지는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새벽 2~6시까지는 정신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인체는 밝은 환경에서 수면을 위해 필요한 물질 '세로토닌'을 만들어 낸다. 행복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 이 물질은 빛에 의해 조절·작용하는데,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한다. 즉, 빛이 있는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면 몸이 밤으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호르몬의 정상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낮 동안 충분한 빛을 보고 활동하며, 밤에는 빛을 피해 고요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탈모 방지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3 규칙적, 균형적인 식습관 유지**  
식습관은 일종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위이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등은 좋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 및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 생선 등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음식 외 식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인체는 매일 비슷한 시각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영양소를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한다. 끼니가 불규칙하면 모발이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늘어지고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루 꼭 세끼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두끼라도 좋으니 규칙적인 시간에 섭취하도록 한다. 여기에 중요한 식습관 하나를 더 보태자면 '오래 씹기'다. 일반적으로 30~50번 정도 씹은 후 음식을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번 정도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탈모에 좋은 음식으로는 수면에 중요한 세로토닌, 멜라토닌 호르몬을 함유한 음식으로 체리, 바나나, 연근, 우유 등이 있다. 대파, 양파, 영지버섯, 동글레차, 마늘 등도 신경안정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음식이다.

**4 바른 자세는 기본**  
구부정하고 기울어진 자세도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대부분 직장인들은 등이 구부정해지면서 어깨가 둥글게 되고 턱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가 많다. 이처럼 나쁜 자세는 두피로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충분한 영양이 미치지 못하므로 모근이 약화되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골반부터 척추 머리까지 바르게 정렬된 자세는 인체의 자율신경 및 장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주의할 점은 아무리 바른 자세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지나치게 경직되는 근육이나 부위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휴식 등으로 한 번씩 이완해주는 것이 좋다.⑩



- TIP**  
**탈모 방지 샴푸법**
- ① 샴푸 전 브러싱으로 머리 엉킴을 방지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 ② 모발을 미지근한 온도(약 37도)의 물에 충분히 적신다.
  - ③ 500원짜리 동전 한 개 크기 정도의 샴푸를 손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내준 뒤 모발에 도포한다.
  - ④ 거품으로 모발 전체에 두피하고,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 한 후 행구어준다.
  - ⑤ 다시 한 번 거품을 내어 모발 깊숙이 손을 넣어 두피를 중심으로 3~5분가량 샴푸한다.
  - ⑥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행궈준 후, 마무리는 차가운 물을 이용한다. 미지근한 물은 모공을 이완시켜 노폐물 배출이나 제거하고, 차가운 물은 이완된 모공을 다시 수축시켜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다.
  - ⑦ 되도록 마른 수건을 이용하여 모발을 누르듯이 물기를 제거한다.
  - ⑧ 자연바람이나 선풍기로 모발을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드라이어를 이용할 경우, 모발에서 20~30cm 정도 떨어지게 한 후 냉풍을 이용하자.

1달러 1,000원 시대,  
달러가 전락  
공과금의 비밀

해외여행에서 쇼핑할 때마다 스마트폰의 '계산기' 앱을 실행하는 이유는 "우리 돈으로 얼마지?"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다.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땐 출국 전 은행에서 얼마에 환전했는지, 신용카드로 계산할 땐 지금 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그래야 '아이템 획득'인지 '바가지'를 쓴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즘 환율 계산 참 쉬워졌다. 기준을 '1,000원'으로 통일하면 큰 오차 없이 계산되니 말이다. 1달러도 '1,000원', 100엔도 '1,000원'... 참 단순한 환율이다. 이제 2달러 39센트, 66엔짜리 물건을 집을 때마다 머리 한쪽이 아파지는 일이 없어졌다.

#### 1달러 '1,000원'으로 수렴...내릴까 오를까

한 때 1달러를 800원에 살 수 있던 시절을 거쳐, 그 두 배인 1,500원에 사야 했던 시절도 지났다. 그 이후 달러 가격은 급락했고 급기야 '1,000원' 아래도 내다보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흐름은 1,000원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완만한 등락을 하고 있다.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릴 때는 900원도 깨질 거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분위기는 또 다르다. 최근 한 달 새 원 달러 환율은 반등 곡선을 그리고 있다. 1,000원 언저리에서 1,030원대로 상승했다.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 사이트를 이용할 때 다시 계산기를 꺼내 들여야 할 상황이다. 900원까지 달러 시세가 떨어질 거라던 기대는 흐릿해졌고, 1,000원을 바닥으로 크지 않은 폭으로 횡보하면서 1,000원대 초반 환율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편에서는 달러 강세 흐름이 더 지속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강남 '큰 손' 엔화 대출에 관심

일본 중앙은행(BOJ)은 통화 공급을 연간 60조~70조 엔을 늘리는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엔화

수도꼭지는 아직 잠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반등하는 원·달러 환율과 달리 원·엔 환율은 아직 확실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덕분에 일본 홋카이도로 떠나기로 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울 때 환율 계산이 좀 더 단순해졌다.

요즘 강남의 부자들은 엔화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 등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데다, 저금리 탓에 금융상품의 매력도 떨어졌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금리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건 '엔화 대출'이다. 2008년 이전에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이자율이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면 그 금리 차이만으로도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엔화가 700~800원 수준일 때 엔화 대출이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다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엔화로 빌린 원금이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고, '싼 이자'가 목을 조르는 상황이 됐다. 그 위기를 겪어 본 이들은 '엔화 대출'에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엔화 가격이 내려가고 장기간 저금리가 유지되는 지금 상황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는 핵심 상권의 임대 수익률은 3.5%~7% 수준이다. 엔화 대출을 이용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그 차액이 수익으로 남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있지만 저금리 기조에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의지가 강한 만큼,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엔화 대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 환율 기술, 갈아타는 ‘타이밍’이 포인트

‘엔화 대출’로 금리 차를 노리는 재산 불리기는 일반 개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개인들도 이 흐름을 재산 불리기에 활용할 방법이 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코프는 ‘싼 엔화, 낮은 금리’의 직접적인 수혜 주다. 이 주식을 사면 그 수혜를 비슷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리드코프의 주가는 1년 전보다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깝다. ‘원화 강세’ 흐름에서 이익을 얻는 대표적인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원화 가격 상승세가 꼭지에 달했던 7월 초 CJ제일제당의 주가도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주가는 흐름을 반영한다. ‘원고’가 유지되더라도 그 상승 추세가 꺾이면 주가도 꺾인다. 따라서 환율 추세가 강하게 변할 때는 주식이 유리하지만, 그 흐름이 완만해지거나 유지되는 국면에서는 대상을 적절히 갈아타는 감각이 필요하다. 달러 가격이 장기적으로 바닥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은 상황에서는 좀 더 안전하고 장기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외화 예금’을 노려볼 만하다.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 상품을 이용하면 여유자금을 달러화로 예치해두고 달러화 가격이 상승하면 원금이 함께 오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달러화보다 더 ‘뜨거운’ 통화는 위안화다. 6월에 내림세를 멈춘 위안



달러화보다 더 ‘뜨거운’  
통화는 위안화다.

화 시세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로 위안화 결제가 더 손쉬워지면서 활용도 또한 높아졌다. 세계 주요 통화가 수도꼭지에서 물 쏟아내듯 ‘양적 완화’에 열을 올리는 것도 위안화의 상대적 희소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미 부자들은 앞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달러는 오히려 줄이고 위안화로 갈아타는 흐름이다. 한 달 치 자금 흐름을 다음 달 초 한국은행의 발표로 확인할 수 있으니, 동참하기 어렵지 않다. 주가와 달리 환율 흐름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 ‘직구’로 비용 줄이기

사실 서민들의 ‘재산 불리기’란 있는 돈 잘 굴리기보다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기’에 포인트를 뒀야 한다. 특히 환율을 이용하는 재산 불리기라면 직구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정찰제’를 고수하는 프리미엄 상표의 제품은 환율에 따라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니, 평소 눈여겨 둔 제품을 살 때 정보를 확인해 두면 좋다. 예를 들어 애플(Apple) 제품을 살 때 국내 마니아들은 일본, 홍콩 등 해외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회사 특징이 공식 가게에 국가별로 가격을 정확히 공개해둔다는 점이다. 직영 매장이나 재판매 매장을 가보더라도 가격은 거의 같다. 그만큼 ‘환 투자’를 하기 좋은 대상이다. 얼마 전 노트북을 바꿔야 한다고 부인을 설득한 이 모 씨는 15인치 2.5GHz 칩이 탑재된 맥 북 프로의 공식 가격을 보여줬다. 애플의 국내 공식 가게에 적혀있는 가격은 299만 원. 예산 299만 원을 확보한 뒤, 이 모 씨는 ‘비자금’마련에 나섰다. 해외의 애플스토어를 검색해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아보니 역시 일본이다.

일본 애플 스토어의 공식 가격은 24만 8,800엔. 적당히 환율 우대를 받아(100엔=1015.95엔) 환전한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 약 253만 원이다. 일본에서 사오면 46만 원의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내 애플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일본의 kakaku.com을 검색해보니 23만 7,499엔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니 무려 50만 4,700원의 차이! 그러나 이 모 씨는 범행 성공 직전, ‘직구’의 선수인 부인에게 털미를 잡혔다. 결국, 일본 홋카이도의 자연 속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이 모 씨의 손에는 맥 북 프로가 들려있었고, 한 명의 여행비가 절약된 지난 여름휴가는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다. 절약한 만큼 웃음과 돈, 모두를 돌려받았으니 말이다.㉞

직접 기르는 베란다 텃밭

# 우리 아이, 잘 먹고 있나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높은 구두일수록 오래 걷지 못하는 법이다. 오래 걷기 위해서는 조금 낡았더라도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하듯, 벌레 먹어 구멍 나 있더라도 농약 없는 유기농이야말로 우리 아이 건강을 지켜주는 바른 먹거리다. 가을을 맞이해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줄 베란다 텃밭을 아이와 함께 만들어보자.

## 당신은 유기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아이에게만큼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고 싶은 게 모든 엄마의 마음이다. 특히 아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만큼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만 골라주고 싶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한 번쯤 봤을 법한 친환경 인증 마크. 그런데 같은 친환경이라도 유기농과 무농약이 나뉜다는 사실을 알고있는가.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무농약은 병충해용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도 기준치의 3분의 1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기농은 비료와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친환경 농산물'로 묶을 수 있지만 화학비료의 허용 면에서 엄연히 다르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을 먹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농약을 뿌렸던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3년이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고 싶은 엄마라면 직접 유기농 채소를 길러 보는 것은 어떨까.

아이들의 감성과 건강을  
사로잡을 수 있는  
베란다 텃밭을 만들어보자.



## 아이의 건강과 감성을 사로잡는 베란다 텃밭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불법과 비리가 난무한 친환경 농업의 진실을 파헤쳐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 그렇지 않아도 값비싼 유기농 식재료가 이제는 진짜인지 아닌지 믿을 수도 없어 주부들의 한숨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베란다 텃밭을 꾸미면 아이들의 건강을 엄마가 직접 챙길 수 있다. 또 주말농장과는 달리 집안에 있으니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감성도 함께 자란다. 채소를 기르는 것에 직접 동참하며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베란다 텃밭. 아이와 함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TIP

#### • 가을에 기를 수 있는 채소

청경채, 비타민채, 홍쌈추, 청겨자채, 케일, 로즈케일, 래디시, 비트, 대파

#### • 1년 내내 기를 수 있는 채소

바질, 파슬리, 애플민트, 로즈마리, 새싹무순, 새싹청경채, 숙주나물

### 1. 화분에 이름을 지어주자

아이들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면 애착심을 가진다. 화분에 씨앗을 심을 때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 팻말까지 같이 심어주면 아이는 수시로 드나들며 화분을 관찰할 것이다.

### 2. 역할을 나누어 주자

평소 채소를 안 먹는 아이라면 텃밭 활동에 역할을 나누어 주면 좋다. 달걀껍데기를 이용해 천연 비료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거나, 물 당번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텃밭에 관심을 갖게 하면 채소가 식탁에 올라왔을 때 거부감이 덜하다.

### 3. 텃밭 변화를 기록하자

직접 놀이를 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아이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언젠가 자라서 추억할 아이를 위해 텃밭 일지를 만들어 기록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떡잎이 올라올 때, 지지대를 세워 주었을 때 등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 노트에 써보자. 이따금 이파리를 채취해 노트에 붙여 아이의 생각도 함께 적으면 더욱 흥미를 느낀다.<sup>㉓</sup>

# 대관령 숲속에서 보석 같은 길을 만나다

우리는 선자령 눈길을 걷기도 하고, 반정을 거쳐 대관령 옛길을 따라 걷기도 하며, 능경봉을 거쳐 백두대간을 타기도 한다. 그러나 대관령에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숲길이 있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른다. 이 비밀의 정원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자.



대관령(大關嶺).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 경계에 있는 고개.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을 나누는 고개. 굽이굽이 아흔 아홉 구비를 돌아가는 고개. 동해로 들어가는 오십천과 남한강 상류인 송천을 가르는 분수령(分水嶺). 한 겨울 눈길 걷기의 중심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를 시작하는 곳. 이 모두 대관령의 다른 얼굴들이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목적으로 대관령을 찾는다. 그 중 하나가 걷기다.

### 대관령에서 숲 향기를 맡다

대관령 숲길은 이름값에 걸맞게 대부분이 숲길이다. 그것도 가파르지 않고 유순한 숲길의 연속이라 걸음에 신경 쓸 일이 없어 자연스레 주변의 풍광에 시선이 간다. 하늘을 찌를 듯 쪽쪽 자란 나무 터널 사이로 들어서면 가슴이 서늘해지도록 청정해진다. 숲이 주는 효과를 굳이 피톤치드라는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다. 식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피톤치드를 내뿜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쯤이라고 하고 계절로는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라고 한다. 가을의 향취를 품은 대관령, 숲 향기를 맡기 제법 좋은 곳이다.

### 대관령에서 야생화를 만나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산줄기는 어머니 산인 지리산에서 백두대간이라는 마침표를 찍는다. 그리고 이 백두대간이 강원도로 들어서면서 큰 고개 하나를 만드는데, 큰 관문이라는 뜻으로 대관령이라 한다. 대관령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봄가을이 짧고 여름은 서늘하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 때문에 야생화가 피는 시기도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로 그리 길지는 않지만 야생화가 피는 대관령은

#### 찾아가기


평창군 횡계에서는 대관령 휴게소까지 가는 버스가 없고 강릉에서 대관령 휴게소까지 하루 1회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 단, 평일과 동절기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외지에서 가는 경우 일단 평창군 횡계까지 먼저 간 뒤 횡계에서 대관령 휴게소까지 택시로 간다.

하늘을 찌를 듯이  
늘씬하게 자란 나무들이 적당하게 휘어진 길은  
사색하며 걷기에도 그만이다.



또 다른 세상이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야생화의 아름다움에 빠지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일단 걸음이 느려진다. 주변의 작은 꽃에 마음을 빼앗기고 카메라에 그것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산에 왔어도 꼭 정상을 고집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주변에는 야생화가 잘 자라지 않기에 인적이 드문 곳에 핀 꽃을 찾아 이리저리 분주하게 옮겨 다니다 보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대관령 숲길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숲길 주변으로 야생화가 지천이다. 나그네의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 대관령에서 안개비에 젖다

대관령은 날씨의 변화가 심한 곳이어서 맑은 날이었다가도 갑자기 안개가 끼고 어느새 비가 내리기도 한다. 세차지 않은 비가 내리는 가을 속 숲길은 또 다른 낭만이다. 안개비가 그리움처럼 내리는 날 숲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가. 대관령 숲길은 비 오는 날 걷기에도 그만이다. 오르내림이 심하지 않고 잘 정비된 길이어서 우산을 쓰고 걷기에도 거침이 없다. 비가 오는 숲길에는 사람의 자취도 없어진다. 온 산의 주인이 된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다. 아지랑이 안개비가 내리면 대관령 숲길은 비로소 내 것이 된다. 





행복

### 완제품 자동 창고와 이송

갠트리로봇이 Uniformity 검사가 완료된 타이어를 규격별 특성별로 자동 분류 및 이송, 완제품 자동창고로 보관하고, 출하시 갠트리로봇이 자동으로 타이어를 구분하여 신축 컨베이어를 통해 출고하므로 보관 및 출하과정에서 혼적 및 손상을 제로화 합니다.



(창)정련파트 카트체험

## 상남자들의 거침없는 질주 본능

지루한 장마 끝에 경주의 하늘이 쨍하게 갠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폭우가 퍼붓더니, 필시 인물 좋고  
 환칠한 11명의 남자들이 경주에 뒀기 때문이리라. 꿀 같은 휴일도 마다하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뭉친  
 (창)정련파트 사우들의 카트 체험 Ready~ Start!

스피드를 즐기는 진정한 승부사

빠르게 돌아가는 카트의 바퀴와 아스팔트 표면이 쓸리면서 나는 굉음이 울릴 때마다 경기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깨가 짜릿함에 들썩였다. 오늘 사우들이 체험할 카트 레이싱은 조작이 쉬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 더군다나 체감속도가 높은 반면 차체가 낮아 뒤집어질 염려가 없어 스피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카트 탈 때 물풍선 던져도 돼요?”

“바나나 껌질 던져도 되나?”

체험에 앞서 한껏 들뜬 모습이 영락없는 개구쟁이인 이들은 평균 연령 35세의 (창)정련파트 사우들이다. 약속 시간보다 훨씬 먼저 와 취재진의 등장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레이싱장을 바라보며 연신 탄성을 질러대던 11명의 남자들. 촬영을 위해 두 조로 나누어서 카트에 타 달라고 했더니 서로 먼저 타겠다며 가위바위보를 제안한다.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한 이들이 선발대로 카트에 오르고, 간단한 작동방법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있는 힘껏 액셀을 밟으며 시원스레 미끄러져 나갔다.

“이야~ 평소 운전습관 나오네~!”

“아야 안전운전해라!”

평소 승부욕 강하기로 소문난 김현규 사우가 질주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선두로 치고 나가자 뒤따르던 전덕배 사우가 바짝 따라붙는다. 이어 속력을 줄여야 하는 커브구간. 미처 스피드를 줄이지 못한 김현규 사우가 헛바퀴를 굴리며 경기장 한가운데 잔디밭으로 올라서고 말았다.

“재 지금 잔디 깎나~!”

“와하하하.”

순서를 기다리며 선발팀을 구경하던 벤치에서 장난 섞인 아우가 터져 나온다. 10분 남짓의 아쉬운 레이스가 끝나고, 드디어 후발팀이 카트에 올랐다. 엔진에 힘찬 시동이 걸리고, 바람을 가르는 스피드 경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얹치락뒤치락하며 승부를 가리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포즈를 취하는 사우들. 지켜보는 이들은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핸들까지 놓고 천진하게 두 손을 흔드는 송남철 사우를 보니 역시 무서울 것 없는 상남자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C A R T R I D E R



모든 공정의 시작, 정련공정

치열했던 레이싱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경기장 한쪽에 주차되어있는 카트에 사우들이 몰려든다. 차체를 찬찬히 살피더니 결국에는 작은 타이어로 시선이 향하는 그들. 놀려와서까지 타이어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것을 보니 어쩔 수 없는 넥센의 남자들인가 보다. 타이어 공정의 가장 첫 단계를 알고 있는 (창)정련파트는 원재료를 혼합해서 뒷 공정으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맛좋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콩을 곱게 가루로 뺏아야 하듯 넥센의 품질 좋은 타이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련공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여 가지에 이르는 원료를 기계에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해 반죽하는 일을 하다 보니 타 공정에 비해 힘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부분도 많죠. 4조 3교대라 주로 평일에 쉬기 때문에 시간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부대끼며 근무를 하는 사우들은 작업이 힘들었던 날엔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며 누구보다 끈끈한 동료애를 쌓아가고 있다. 가끔은 여자 사우들과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않느냐는 장난스런 질문에도 오히려 남자끼리 통하는 세계가 있어 괜찮단다. 입으로는 거친 말을 내뱉을지언정 속으로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위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덥기로 소문난 창녕의 여름. 하지만 올해는 냉풍기가 나오는 공조 시설이 설치되어 다른 해보다 시원한 근무환경에서 여름을 날 수 있었다.

“작년 여름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

조 시설 설치를 건의했더니 회사에서 흔쾌히 받아들여 줬죠. 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 그게 바로 복지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장난꾸러기처럼 웃던 강병구 사우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과연 놀 땀 놀고 일할 땀 일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젊은 피답다. 아스팔트 위를 거침없이 시원하게 내달리던 열정 그대로 넥센타이어 (창)정련파트도 내일을 향해 계속 질주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가류파트 김남현 · 배영철 사우

## 맥주 만드으리!!

바야흐로 가을은 고독한 남자의 계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 술 고픈 의형제 가류파트 김남현 사우와 배영철 사우가 수제 맥주를 만들기 위해 이날 뭉쳤다. 이제 “내가 마실 맥주는 내가 직접 만드으리!”



이른 아침, 부산 바다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맥주 만들기 공방에 나타난 가류파트의 김남현 사우와 배영철 사우. 마치 쌍둥이 형제인 듯, 옷 스타일도 일명 ‘폴로 스타일’로 맞춰 입었다. 맥주 저장고 안에 들어선 두 사람은 감탄사를 연신 연발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세계 각국 맥주 종류를 다 섭렵한 맥주 애호가 김남현 사우가 배영철 사우에게 맥주 종류에 대한 설명을 아낌없이 해주는 모습에서 “역시!” 라는 감탄사가 나올만했다. “외계인이라는 취급까지 받을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그래도 싫진 않아요.”

김남현 사우는 평소 맥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사우들이 ‘맥주 외계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 김남현 사우가 ‘외계인’이면, 배영철 사우는 외계인의 의로운(?) ‘주당’ 이라고 할 수 있다.

맥주 저장고에서 좀처럼 나올 생각을 안 하는 두 사람. 공방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맥주 시음을 제안하자 냉큼 나왔다. 직접 만든 수제 맥주에 나초 안주까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 아침부터 시작된 총 다섯 잔의 맥주 시음. 두 사우는 행복한 비명을 지를 기세다.

“자 오늘 만들 맥주는 ‘American Pale Ale(APA)’이라는 맥주예요. 이 맥주는 향긋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자랑하죠. 자 그럼 맥주 주재료인 몰트를 넣어볼까요.”

두 사우는 맥주 애호가답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 드디어 시작이다.





펄펄 끓는 물에 넣은 몰트를 함께 저으며 연신 싱글벙글이다.  
이렇게 휘휘 젓는 데만 이십여 분이 훌쩍 지났다.  
“자이제 호핑(홉 넣기)을 하고, 효모를 넣기 위한 급속 냉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순물들이 제거되죠.”  
두 사우는 오전 음주에도 불구하고, 공방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수제 맥주 만들기에 집중. 이대로 맥주 공방 하나 차릴 기세다.  
이렇게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자이제 발효조에 담고, 효모를 흠뿌려주시면 끝이에요.”  
집중, 또 집중. 둘의 의기투합은 그야말로 술로 맺어진  
의형제답다.  
이렇게 발효조에 담긴 수제 맥주는 오늘의  
주인공답게 조심조심  
두 남자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저장고로 옮겨졌다.  
“건강하게 잘 먹어다오. 애들아.”  
김남현·배영철 사우의 애절한  
한마디와 함께 갓 탄생한  
수제 맥주는 숙면에 들어갔다.



### 그리고 일·주·일 후

두 사우가 다시 조우했다. 바로 애지중지 기다리던  
수제 맥주 아기들의 병입을 위해...  
에어락을 누르는 김남현 사우와 배영철 사우의 신중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수제 맥주, 과연 그 맛은?  
“우리가 만든 거 정말 맛지? 평소에 정말 동호회에 가입해서 배워볼까  
했었는데, 마실 때만 좋은 게 아닌데요? 정말 뿌듯합니다.”  
김남현 사우는 배영철 사우와 병입한 맥주를 흔들며 보이며 감격한 눈치다.  
“저희 파트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든 맥주가 대체 어떤 맛인지  
말이죠.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주셔서요.  
앞으로도 수제 맥주 열심히 만들어서 전 사우들에게 시음의  
기회를 드려야겠네요.”  
장인의 손길이 닿은 수제 맥주의 운명은 아마도 오늘 밤 가류파트의  
회식에서 풍부한 거품으로 행복하게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깊어가는 가을, 김남현·배영철 사우의 수제 맥주를 향한 외침이  
부산 밤바다에 저만치 울려 퍼진다.  
“카~ 살아있네. 살아있어~ 맥주 또 만드으리!!”<sup>1)</sup>



# 고마웠어 여름아!!

지난 여름, 우리 넥센 가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여행, 일과로 지친  
나에게 주는 꿀맛 같은 휴가, 평소  
만나지 못했던 동기와의 진한 추억  
만들기 등 우리 넥센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무더운 지난여름을 잘  
이겨냈습니다. 사진으로 남긴  
지난여름의 달콤 쌉싸름한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 (창)생산관리팀 박인혁 대리  
이번 여름 제주도 판포리, 군산 오름에서,  
사진을 보니 다시 가고 싶다 ~



⬆ 인사기획팀 임광현 대리  
태안으로 3박4일 캠핑 중, 해먹이 너무 좋은 아이들  
꾸지나무골해수욕장에서~



⬅ 정련파트 이상민  
충청도 단양에서 즐긴  
패러글라이딩 정말  
스릴만점에 재미까지  
있어요~



» 설계해석팀 강민성 주임 연구원  
지난 6월, 한창 더웠던 주말에 같이 팀에서  
일하고 있는 동생과 내원사 계곡에서~



실차평가팀 김남웅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하자" 라는 목표로  
방문한 이탈리아, 비싸서 안타고 사진만~



⬆️ **재료파트 변재운**  
휴가 때 방문한 태백 해바라기 축제~



» **생산기술팀 송명욱 대리**  
경주 워터파크에서~



» **재료파트 이용진**  
화명동에 있는 대천천~



⬆️ **채널운영팀 이현구 과장**  
자연치유허링, 방태산 자연 휴양림에서~



⬆️ **유럽팀 서은경**  
넥센 27기! 서울사무소 동기들과 가평에서 화기 애애~

» **남부신유통팀 하상구**  
일본 유후인 긴린코 호수 앞에서 와이프와 함께~



⬆️ **설비보전파트 정재욱**  
이번 휴가는 설비보전2파트, 공무팀, 가류파트, 품질검사팀과 함께 배내골 단합회~



⤴ 품질검사팀 박진우

11월 23일 결혼하는 여자 친구와 함께 파리로 여행을~



⤵ 재료파트 방성암

전남 영광 법성포에서 혼자  
다녀왔지만 나름 즐거운  
여행~



⤴ (창)성형파트 진대원

(창)가류파트 홍병진 사원과 함께 제주도에서~



⤵ 정련파트 이원희 조장

지리산 쌍계사 계곡에서 5살 이나은이 세월을 낚다~



⬆ PCR파트 오영현  
우리 연아, 다경이와 통도  
환타지아에서 즐거운 한 때를~



⬆ 재료파트 김종훈  
제주도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말을 타고 기분 최고~



⬆ 제품평가팀 정선한  
친구들과 함께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을~



⬅ (창)재료파트 황병혁  
단합대회 중 물고기가 사람 잡네~~

➤ 인사기획팀 조광신 과장  
코타키나발루, 누구를 위한  
여행이었는지. 7개월 된 아이가  
기억할 지는 모르겠지만~



➤ 공정연구팀 김동우 선임 연구원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사진. 예쁜 딸과 예쁜 와이프랑 창녕 우포늪에서~



※ 지면 관계상 응모해주신 사진 모두를 실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대신 10월 중 양산 본사 식당 앞  
게시판에서 추가 사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넥세니 대리점 방문기

## 타이어테크 배재점

넥세니가 소개하는 타이어테크 이야기.  
이번에 방문한 매장은 레이싱을 즐기는 열정적인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한 타이어테크 배재점이다.

매장 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이어테크  
배재점입니다.



## 꽃보다 직원

사장  
남궁태양

안녕하세요!  
타이어테크 배재점의  
공동대표 남궁태양입니다.  
저는 흠·배기 관련 업무와 튜닝파츠를  
맡고 있습니다.  
10년 전쯤 레이싱에 입문해  
지금까지 그 열정을  
이어오고 있어요.

실장  
정준모

안녕하세요!  
정준모 실장입니다. 저는  
배재점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인터넷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원래 손님으로 이 매장에 들렸었는데,  
사장님들의 열정에 반해서  
함께 일하며 레이싱에 뛰어들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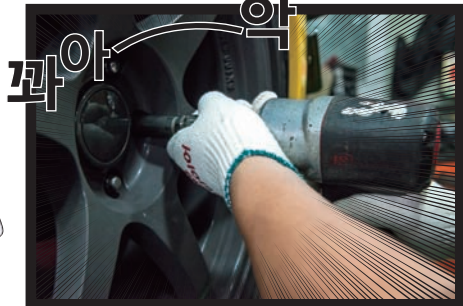
사장  
박관철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박관철입니다.  
저는 휠, 타이어, 휠얼라인먼트를  
담당합니다. 1년 전 영암서킷에  
처음 가보고 달리는 재미에 푹 빠졌지요.  
2014 Korea International Circuit  
TRACKDAY TT-B 클래스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하하,  
너무 자랑인가요?

## 매장 안



와,  
서킷에 나갈 차를  
점검하나 봐!  
어? 근데 작업복이  
넥센이어즈  
유니폼이네요~



네~ 저희는  
넥센타이어에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을 느끼며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유니폼이  
편하기도 하지만 넥센인이라는  
자부심이 더욱  
생기는 것 같아요.



♪♪



물론 대전이라  
한화팬이 매장에  
많이 오시지만,  
그래도 다들  
즐거워하세요.



끔  
끔



베지!



당연하죠!  
레이싱이 시작된 후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그날의 경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출전 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전점검과 수리가

우와,  
되게 꼼꼼하게  
점검하시네요!



화  
기 애애

## 변신 중



저희는 타이어, 오일 등  
모든 제품을 직접 써본 후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차의 종류,  
운전자의 연령대, 운전 스타일 등을  
파악해서 개개인에 맞춰 추천하지요.  
자, 점검을 마쳤으니 의상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2~3개월에 한 번씩 있는  
경기에 출전해 그 시간을 즐기며  
재충전합니다. 저희 매장은 거의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해하실 일도 없지요, 오히려  
차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하세요.  
저도 레이싱복으로 승!

멋지다,  
멋져!!



자,  
이제 달려 볼까요?

승  
승



유쾌한 웃음이 한시도 떠나지 않던  
타이어테크 배재점. 열정 가득한 이들의  
꿈은 사업의 성공과 레이싱의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객에게도,  
서킷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목표를 이룰 날이 얼마남지 않은 것  
같다. 언제나 건강하게 달릴 수 있기를  
응원한다. <sup>(N)</sup>

천년 기업을 향한 넥센타이어의 도전

# Challenge Leadership 교육과정



넥센타이어의 챌린지리더십 교육과정이 과장급 이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10차수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진행했던 'Big Challenge By Healing'의 연장선상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조직문화 전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리더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Global Major Player'로의 도약을 위해 달성해야 할 경영현안을 공유했다.



김성근 감독

강병중 회장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특강시간을 매 과정마다 운영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리더들에게 제공했다. 총 2박 3일의 과정으로 진행된 임원교육은 야신(野神)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김성근 감독은 '1球2無(공 하나에 그 다음은 없다)'라는 본인의 야구철학을 이용해 NO.1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리더가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하는가를 강조했다.

## 사업을 챙기는 리더, 임원

문제의식-책임의식-성과의식으로 구분한 임원의 역할 정립 및 변화시기의 성장전략에 대한 특강 등으로 구성된 이번 강의에 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글로벌 경제상황 진단과 같은 강의 시간에는 강의를 도중에 끊을 정도의 질문 세례가 이어져 'Global Company'로 한 발 내딛은 넥센타이어에 대한 임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임원교육의 마지막은 이현봉 부회장의 특강이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물량 증설계획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에 따른 경영현황을 전하면서 임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허리, 차·부장 및 과장

차·부장 및 과장교육은 총 1박 2일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차·부장 교육은 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리더의 4가지 핵심역량인 관점-코칭-위임-몰입을 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인문학, 소통, 교육, IT트렌드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테마특

강을 더해 리더의 시각을 한층 더 넓히도록 했다.

과장교육은 '차세대 리더의 육성'이라는 취지 아래 비즈니스 리더십 함양에 초점을 맞춘 BMG(Business Model Generation)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시장의 판도를 바꾼 다양한 기업의 사례들을 학습하며, 넥센타이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보는 과정이었다.

교육 마지막은 강병중 회장의 특강으로 넥센타이어의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천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간간부의 역할을 주지했다. 또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타이어 업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넥센인이 되기를 당부했다.

'思行習人運'이란 말이 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뜻이다.

목표를 향한 우리 넥센인의 생각이 간절하고, 그 선두를 리더들이 잘 이끌어 간다면 천년 기업의 꿈이 그저 꿈만으로 그치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교육은 그 꿈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㉞





## ‘엔페라 SU1’ 고객체험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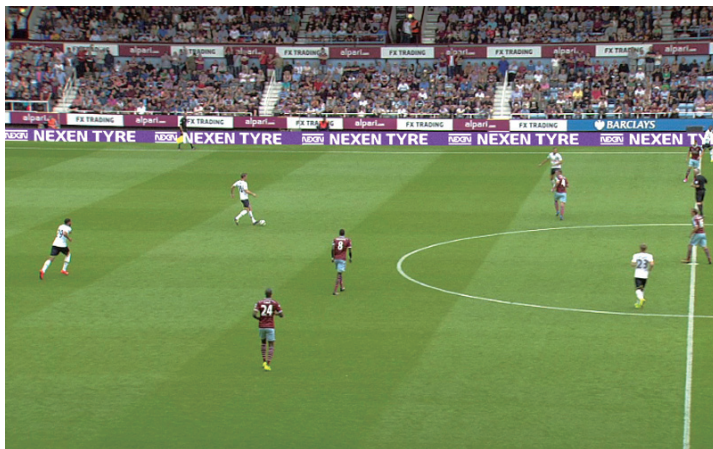
넥센타이어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총 18명의 고객체험단과 함께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 SU1’에 대한 체험 평가를 진행했다. ‘엔페라 SU1’은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적인 코너링과 빗길주행에서의 뛰어난 배수성을 강화한 초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로 수입차 등 고급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30, 40대 운전자의 니즈에 맞춰 개발되었다. 체험단은 ‘엔페라 SU1’에 대해 빗길 주행성능,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 부드러운 승차감, 코너링 안정성 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빗길 제동 성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 ‘엔블루 에코’, 美 친환경 디자인어워드 본상 수상



넥센타이어의 친환경 타이어 ‘엔블루 에코(N'Blue ECO)’가 미국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Green Good Design Award 2014)’에서 제품 부문 본상을 받았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기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엔블루 에코’는 넥센타이어의 대표적인 친환경 타이어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 설계기술과 신소재를 채용한 차세대 컴파운드를 적용, 회전저항을 줄이고 연비를 크게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 축구 마케팅 강화로 유럽시장 공략 가속화



넥센타이어가 유럽축구 4대 빅리그로 불리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축구 리그에 구장 광고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턴, 토트넘 홋스퍼, 사우샘프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등 4개 팀 구장과 독일 분데스리가의 마인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발렌시아 2개 팀,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A 리그의 나폴리, 라치오 2개를 포함한 5개 팀 구장, 총 9개 팀 구장에 넥센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현지 드리프트 팀을 구성해 꾸준히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독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팀 후원을 진행하는 등 유럽지역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으로 유럽시장 공략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 VIP 딜러 컨벤션 행사 개최



넥센타이어가 지난 9월 29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VIP 딜러 컨벤션 행사를 개최했다. 유대관계 강화와 함께 판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지역 40여 명의 VIP 딜러들이 참석했으며, 신제품 ‘엔블루 HD plus’와 ‘엔프리즈 SH9i’, ‘로디안 HTX RH5’, ‘로디안 AT pro RA8’의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모스크바 모터쇼가 진행되는 기간인 8월 20일에서 9월 19일까지 모스크바 4개 노선의 버스 및 트레일러 등 총 22대에 겨울 타이어 제품 ‘윈가드 윈스파크’, ‘윈가드 SUV’, ‘윈가드 아이스’ 광고를 노출, 넥센타이어를 홍보했다. 넥센타이어는 향후에도 러시아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프리미엄 신상품 MI-2 출시



넥센타이어가 국내 프리미엄 타이어 중 최고등급의 마모성능을 가진 신제품 MI-2(엠아이투)를 출시했다. MI-2는 Miracle(기적)을 의미하는 'MI'와 기존제품 대비 뛰어난 마모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갖췄다는 뜻의 '2'를 조합한 이름의 프리미엄 타이어다. 마모성능(Treadwear 720)이 우수한 MI-2는 쾌적한 승차감과 더불어, 빗길 및 눈길 주행성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 업계 최초 '무재해 5배수' 달성



넥센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무재해 5배수'를 달성, 지난 9월 5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와 공로자 표창장을 받았다.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사업장인 넥센타이어는 '발굴하자 위험요소! 예방하자 안전사고!'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7월 2일 무재해 5배수 목표 시간인 3백만 시간을 달성했다. 넥센타이어는 각종 사고 사례 내용을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스마트 알리미', 안전규정 위반 시 입소교육을 받는 '안전학교' 등 안전, 보건, 소방, 환경 등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 4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3개 분임조가 출전, 은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전국대회를 제패했다. 이 대회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원가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등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 실행 성과까지 낸 품질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또 경쟁하는 자리로 역대 최대인 298개 분임조가 13개 분야에서 경합을 펼쳤다. 넥센타이어는 현장개선, TPM(설비), 보전경영 총 3개 분야에 출전했다. 재로파트 방

앗간 분임조는 'BEAD GROMME 설비 개선으로 비드와이어 부적합품률 감소'라는 주제로, 가류파트 가마솥 분임조는 '현장 변화를 주도하는 3-P TPM 활동으로 설비 종합 효율 향상'이라는 주제로, 전기파트 번개 분임조는 'UHP 보전경영 활동으로 설비 종합 효율 향상'이라는 주제로 각각 대통령상 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체코 아이스하키팀과 스폰서십 체결



넥센타이어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체코의 최상위 리그 아이스하키팀 몰라다 볼레슬라프(BK MladaBoleslav)를 올해 9월부터 2년 동안 후원한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시즌 홈경기 때 빙상 표면 광고를 진행하며 그 밖에도 경기장 관중석, 펜스, 선수 벤치, 헬멧, 경기복 등에 브랜드를 노출하게 된다.

## ‘엔페라 RU5’ ‘올해의 SUV 타이어’ 선정



중국의 영향력 있는 자동차 전문지, <기차족>이 주관한 타이어 전문 테스트에서 넥센타이어의 엔페라 RU5 제품이 '올해의 SUV 타이어'로 선정됐다. 올해는 12개의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가속, 제동, 소음, 회전자항, 조종 안정성 분야에서 총 11개의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엔페라 RU5' 제품은 SUV 부문에서 회전자항과 차내 소음성능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엔페라 RU5'는 뛰어난 연비와 함께 주행 정숙성도 입증했다.

# 〈헬로우넥센〉과 通하다

〈헬로우넥센〉담당자와 독자 여러분이 생각을 함께 나누는 코너, N Voice.  
이번엔 넥센 사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인 가구, 싱글라이프, 모태솔로 등등 독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 코너가 생겼  
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나눔 코너는 어떨지요? 콘서트  
티켓 싸게 사는 법, 항공권 예약 노하우,  
각종 용어 공유, 윗사람 기분 좋은 시기  
판별법 등등요.

기존 발행된 사보 중 기억나는 사연이나  
코너들을 응모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해외지법인장, 주재원들의 사연도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해외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 사무실 모습 등이 공  
금하네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넥센타이어에 대해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건 어떨  
까요? 예를 들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넥센타이어 얼마나 알고 계  
십니까?’와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거죠.

넥센타이어에 보면 캠핑족이 분명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한  
소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사심이 강하고 모범적인 현장 사우들  
의 소식을 많이 기재해주셨으면….

미혼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는 어떨까요?  
여행지 소개를 할 때 주변 맛집 숙박지  
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함께 소개해준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한국 총괄 영업 지점에 대한 내용을 더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사용 후기 같은 독자의 피드백이 있  
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발  
대식 후 체험 후기를 올리던데 그런 것이  
실려도 좋겠네요.

넥센타이어 임원들의 일대기, 젊었을 때  
의 에피소드 등을 다루는 코너가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센타이어를  
이끌어 온 분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면 지금 신입사원들을 비롯한 젊은 사원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넥센 OB들이나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  
들을 위한 코너를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과거를 되새기며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  
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짝 아이디어 공모전 어때요? 창의적인  
마케팅이나 홍보방안, 디자인 등에 대해  
공모하는 거죠. 최근 타 기업들도 대학생  
을 상대로 공모전 진행을 하는데요, 보다  
가치있는 사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We like  
〈Hello Nexen〉!



안녕하세요. 〈헬로우넥센〉담당자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헬로우넥센〉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N Voice는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의견을 우선시하여 취합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담당자는 언제나 독자 모두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사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많이 부족했고  
또 아쉬웠습니다. 이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5년 〈헬로우넥센〉은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새롭고 멋진  
사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헬로우넥센〉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 더 재미나고 즐거운 사내외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pilogue

### 참여해 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및 업서  
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10월 중으로 개별 연락  
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15일까지 아래 사보담당자에게 연락  
해주세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무효처  
리 됩니다.

● 사보담당자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 포토퍼즐 맞추기

뒤죽박죽 섞인 사진 조각의 제자리를 찾아 멋진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해주세요.



### 지난 호 정답

7	9	5
3	1	4
8	6	2

### 퀴즈 당첨자

- 손민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최소영 경남 양산시 물금읍
- 이종구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 김종만 경남 양산시 물금읍
-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서채진 전북 전주시 효자동
- 김정미 경남 양산시 남부동
- 김화영 부산시 서구 남부민1동
- 정영진 경남 양산시 남부동
- 권민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014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 세계최초 넥센타이어 디자인어워드 그랜드슬램

[ 세상은 네 번이나  
넥센을 택했습니다 ]

2014 IFDesign 수상작  
'N'FERA SU1'

2012 RED DOT  
2013 G-mark 수상작  
'N9000'



5년 연속 글로벌 고객 만족도 1위  
(타이어 부문, 일본 능률협회 선정)

2014 IDEA 수상작  
'Green Hive'

## 세계 최초 4대 디자인어워드 석권!



### 넥센타이어

빗길에 강한 타이어

(타이어 업계 세계 최초 4대 디자인어워드 석권)